



3면
"새만금 예산 복원 없는 심사 불가"

전주매일

2023년 10월 19일 목요일 (음 9월 5일) 제3366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이차전지 안전·신뢰성 평가기반 구축

전북도, KTR과 간담회
지난 5월 협약 시작으로
연구센터 구축 방안 논의



전북도는 18일 경기도 과천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본원에서 김중훈 도 경제부지사와 김현철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원장을 비롯해 연구원 주요 임원과 연구진, 도 이차전지반도체팀, 전북테크노파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사진=전북도청 제공)

전북도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과 함께 이차전지 등 전북 미래 신산업의 세계적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 협력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도는 18일 경기도 과천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본원에서 김중훈 경제부지사와 김현철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원장을 비롯해 연구원 주요 임원과 연구진, 도 이차전지반도체팀, 전북테크노파크가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5월 10일 전북도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이 맺은 이차전지 산업육성을 위한 협약을 시작으로 실질적인 연구 센터 구축 방안을 논의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등 미래 신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입주 기업의 배터리 응용 제품 및 시제품에 대한 안전·신뢰성 평가 기반을 구축해 이차전지 관련 기술 연구 및 개발 등을 확보해나가야 한다. 도는 이를 위해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시험 인증기관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의 조력을 받기 위해 경제부지사가 직접 필요한 전략을 찾기 위해 이번 간담회가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배터리 재활용

소재를 이용한 이차전지시스템 신뢰성 및 화재 안전성 시험평가 센터 구축 △안전성 평가 장비/성능 인증 시험 장비 도입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컨설팅을 통한 세계적인 인력 양성 등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이뤄졌다. 김현철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장은 "기관의 대표적 업무인 안전·신뢰성 인증을 통해 전북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기업들이 기술 확보와 특허 및

시험평가 등을 안정적으로 이뤄나갈 수 있도록 옆에서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중훈 전북도 경제부지사는 "이번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방문을 통해 전북 이차전지 등 미래산업 연구 방향을 논의하게 돼 매우 뜻깊은 자리였다"며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조성은 지역경제 발전은 물론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시작이자 신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으로, 앞

으로도 연구기관과 협력을 통해 전북의 혁신연구 역량과 이차전지 산업 안전·신뢰성을 인정받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이차전지 특화단지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에 가속도를 붙이고 5대 상용화 핵심센터 관련 연구기관 집적화를 위해 국가 예산 확보, 부처 건의 등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김재훈 기자

작년 공공기관 71곳 지역인재 채용 '0명'

266곳 중 139곳, 채용비율 35% 안 지켜
교육부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 '유명무실'
유기홍 의원 "채용비율 상향·법률 규정 필요"

지역균형인재 육성 및 지원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이 지역인재 채용에 소극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유기홍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관악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지방대육성법에 따른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현황'에 따르면 2022년 신규채용 인원이 1명 이상인 공공기관 266곳 중 139곳 기관이 법에서 권고한 지역인재 채용비율 35%를 지키지 않았다. 특히, 266개 공공기관 신규채용 비율을 살펴보면 71개 기관이 단 한 명도 지역인재를 채용하지 않았다. 이어 26개 기관은 1~20% 비율을 나타냈다. 교육부에는 지방대육성법 제8조에 따라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위원회를 두고 있다. 위원회는 법에 따라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실

태를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심의결과에 따라 지역인재 채용실적이 부진한 공공기관에 대해 채용실적을 공개해 지역인재 채용을 확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 유기홍 의원은 "지방대육성법에 따른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은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헌법에서 규정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지방대학 육성 및 강화, 지역인재정책을 책임지는 교육부조차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을 방관한다면 교육부가 사실상 지역대학 죽이기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현행 지방대육성법의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비율 35%는 권고사항으로 규정돼 있어 실효성이 없다"며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상향하고 법률에 직접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 생태관광자원, 국가로부터 가치 인증

운봉 백두대간 생태관광벨트 등, 국가생태관광지 신규 지정
국가생태탐방로 조성 공모에 고창 람사르 운곡습지 선정

전북 생태관광자원에 대한 신규 국가 브랜드 인증으로 전북 청정 자연환경의 가치를 입증하고, 국가 브랜드를 활용한 체류형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외연 확장의 계기가 마련됐다. 18일 전북도에 따르면, 남원 지리산 정령치습지와 운봉 백두대간 생태관광벨트가 국가생태관광지역으로 신규 지정되고, 국가생태탐방로 조성 공모에는 고창 람사르 운곡습지가 선정됐다. 전북도는 지난 2015년부터 도내 우수

한 자연자원을 보전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생태관광 육성사업 등을 추진해, 고창 고인돌 운곡습지, 정음 월영습지와 솔티숲에 이은 남원 지리산 정령치습지와 운봉 백두대간 세 번째 국가생태관광지역 탄생의 결실을 거뒀으며, 이번 지정으로 남원시는 국가로부터 매년 약 1억원의 안정적인 운영비를 지원받게 된다. 이외에도 총사업비 120억원(국비 80, 지방비 40) 규모의 친환경 숙박시설 등을 조성할 수 있는

에코촌 조성사업에 도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도와 남원시는 체류형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및 국가 브랜드를 활용한 홍보·마케팅을 적극 전개해 나아갈 방침이다. 한편 우수 생태자원의 경기 체험 프로그램 제공과 탐방 편의성 증진을 위한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에도 지난 2008년부터 꾸준히 도전해, 작년까지만 12개 노선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300억 이상을 확보했다. 내년부터 생태탐방로 조성 추진될 람사르 운곡습지 일원은 영농차량 빈번한 통행 등으로 안전 사고의 우려가 존재해 탐방로 개선이 절실한 곳으로, 전북도와 고창군은 공모사업 선정으

로 확보한 사업비 30억원을 바탕으로 오는 2026년까지 고창 운곡저수지 도보전용 탐방로(L=3.5km)를 설치해 쾌적하고 편안한 생태 도보탐방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성과 등을 바탕으로 전북도는 각 시군과 긴밀하게 협력해, 체류형 생태관광 기반 조성 및 탐방 프로그램 개발을 비롯한 지역 주민 소득사업 개발 등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다양한 경로를 통한 홍보·마케팅 등으로 탐방객의 지속 방문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지속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강해원 전북도 환경복지국장은 "국가 브랜드의 인증·활용과 효율적인 탐방 기반 조성으로 도내 생태관광의 경쟁력을 강화해 지역 경제와 체류형 관광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주시, 지역 출판산업 육성 '앞장'

도서관 출판 제작지원 응모 5개 작품 지원 대상 선정

책의 도시 전주시가 지역 출판사의 자생력을 높이고 대한민국 책문화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다양한 주제의 도서 출판을 지원키로 했다. 시는 지역 출판산업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최초로 실시한 '전주도서관 출판 제작지원 공모사업'에 응모한 14개의 출판사의 작품 18건에 대한 외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총 5개 작품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선정작은 좋은 기획과 필력에도 불구하고 일반 출판사에서 쉽게 발견하기 어려운 주제 의식을 담았거나, 지역의 문화와 역사에 착안한 작품들이 주를 이뤘다. 5개 지원 작품은 △전주의 원판본문을 접대성한 나무의 문을 열다 △역

사숙 인물인 정여립을 대중적으로 그려낸 낭쟁의 쓰시개로 그려진 선구자 정여립' △물에 관해 친근하고 일상화된 접근으로 지역성과 전문성을 담은 물은 의식이 있다 △전북의 특산물인 생강을 체계적으로 소개한 전주부의 생강 이야기 △연극지도를 위한 현장 지침서인 우리 연극 이렇게 했어요이다. 시는 오는 26일 선정된 출판사와 출판 제작 지원 협약을 체결한 후 각각 600만 원의 출판 제작지원금과 도서 홍보를 지원할 예정이다. 선정작은 11월 30일까지 해당 출판사를 통해 종이 도서로 발간될 예정으로,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도서관 누리집(jh.jonju.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욱기 기자

제20회 익산 천만송이국화축제
2023.10.20. - 10.29. (10일간)
중양체육공원 (익산시 하나로 322)
주최: 익산시 | 주관: 익산시농업기술센터